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2. 02	02. 09	02. 16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최종열 성도	윤미경 자매
성 경 봉 독	정환영 형제	최종열 성도	윤미경 자매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성찬식 - 다음 주일(2월 2일)은 성찬식예배로 드리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1월 생일 축하 - 정환영 형제, 김새연 자매, 이에준 형제
5.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이에준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 (Euro)	
온라인헌금(1월)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 (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190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요 16 : 7 - 13(신p175) (Johannes 16:7-13)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임마누엘의 은혜와 함께 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4.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서커스 몽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서커스 공연을 할 때 원숭이를 훈련시켜 가면과 무용복을 입히고 춤을 추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대의 무용수가 원숭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상한 옷을 입고 우스꽝스럽게 춤추는 것을 보고 즐기다가 서커스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각본에 따라 관객 중 한 사람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무대로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자기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무용수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과일을 향해 돌진하고서는 그 앞에서 가면과 무용복을 찢고 과일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관객들은 그때서야 무용수가 원숭이였음을 알고 비웃으며 조롱한다고 합니다.

닛사의 신학자 그레고리는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서커스 몽키”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평상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흉내를 냅니다. 말도 거룩하게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와 봉사도 잘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권이 눈앞에 있으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탐욕을 부리면서 추태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보고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라고 조롱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생각은 많이 하라 / 故 박재호 목사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성령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눠보세요.
2. 개인적으로 체험한 성령의 인도를 나눠보세요.